

# 도내 기업 육성 벤처펀드 1조원 결성 순항

### 도, SBI인베스트먼트&삼성증권, 바이오펀드 운용사 선정 올해만 12개 4183억원... 민선8기 누적 7000억 펀드 조성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벤처·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육성하고, 도의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 투자사로 'SBI인베스트먼트&삼성증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9월 2일부터 20일까지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2개사가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펀드 운용 계획, 금융투자 및 산업분야 전문성, 경력 및 투자·회수실적, 재무 안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운용사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레드바이오 분야에 최종 선정된 운용사는 총 1개사로 'SBI인베스트먼트&삼성증권'으로 결성될 펀드의 명칭은 '스타트업 코리아 삼성 SBI 초격차 펀드'다.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연내 조항을 결성해야 하며,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8년까지 총 2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당초 결성목표액인 200억원 보다 많은 800억원 이상이 많은 1,000억원 이상의 대형 벤처펀드가 결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출자하는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하지만, SBI인베스트먼트&삼성증권은 벤처캐피탈, IB부문 등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형사로 도내 벤처투자를 주도하는 방향성을 제시해 타 운용사와 함께 공동투자 또는 후행투자 등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점 추진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의 '초격차 분야'로 한국모태펀드(300억원)에 선정돼 연내 결성되어야 하며, 삼성그룹(500억원)이 대규모 출자에 나서는 형태로 올해 결성되는 중기부 '스타트업코리아펀드' 20개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이 펀드를 운용할 핵심인력으로는 IB투자증권 등 제약·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출신의 생물학 박사인 SBI인베스트먼트의 박시형 이사를 비롯해 같은 회사의 이태영, 심민정 심사역은 각각 애널리스트, 약사 출신이 참여하는 등 바이오·헬스케어 투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표이사이자 투자총괄인 안재광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벤처투자에서 손꼽히는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인물로 업계에 정평이 나갔다는 게 금융계의 평가다.

또한 도 관계자는 "누적 운용규모가 2.7조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도 불구하고, 도내 그린·레드바이오 분야 육성정책 방향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성공전략을 제시했다"는 평가위원의 평가가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민선8기 도정은 벤처펀드 1조원 시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목표 대비 초과 결성하며, 출자약정액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벤처펀드 결성에 힘을 모아 준 시군과 민간기업의

출자로 목표 대비 +96% 초과 결성(목표 : 2,130억원 / 실적 : 4,183억원)해 도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전북자치도가 다수의 벤처펀드를 결성함에 따라 2년 만에 6개사에서 31개사로 운용사가 늘어났다. 도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북 벤처펀드 운용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11월 내 출범할 계획이다.

특히, 'SBI인베스트먼트'는 컨소시엄의 '도외 유망기업 유치' 분야의 대표 투자사로 역할하며, 도의 유망기업을 먼저 탐색하고 투자를 동반한 지자체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업유치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도입하는 공모방식의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며, 민선8기 누적 7,000억원 가량의 벤처펀드를 결성했다"며, "시군, 지역 선배기업들과 함께 내년도 지속적인 벤처펀드 출자에 나서서 도내 창업·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협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도, 사회협약위원회 '첫 발'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 주민 권익증진 사회협약 방안 모색 취약계층 주거안정·관광지원 등 사회협약 안건 발굴 논의 등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협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전북특별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출범했으며, 의회, 학계, 법조계, 언론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책 방향 제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한 협의와 더불어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안건이 활발히 논의됐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자율과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전북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시군,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 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관광지원과 같은 도민 권익증진 방안 등을 발굴하여 도지사에게 제시해 사회협약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발전기금(NH농협은행)'을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나눔행사 등 기금 활용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진행됐다.

NH농협은행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여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예금의 일부 이자를 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오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조성된 발전기금은 약 3천4백만 원이며, 내년 3월 말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 정읍시의회 임시회 개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1일 제29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8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승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철보 물놀이장, 여름의 즐거움을 겨울에도'를 통해 사계절 놀이터 조성을 촉구했고, 한선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동행'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을 제안했으며, 이복형 의원은 '정읍역 사거리 주차타워 건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

김석환 의원은 정읍역 역명을 정읍(내장산)역으로 바꿔 전 국민에게 내장산을 홍보하자고 주장했으며, 서향경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피해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어, 최재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14일부터 17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등 총 3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 및 상정된 안건을 의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북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숙련도 평가 9년 연속 우수 인증 획득

미국·영국 국제 인증기관 평가서 52개 항목 '모두 우수' 먹는물·수질·토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능력 '최고 수준'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미국과 영국의 국제 인증기관에서 실시한 보건·환경 분야 국제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 우수 인증을 받으며, 최고의 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분석 능력을 공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능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은 미국의 ERA와 영국 FAPAS 프로그램에 매년 참여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연구원은 2016년 먹는물 분야를 시작으로 매년 검사항목을 확대하여 신청하고 있으며, 9년 연속으로 우수 검사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특히 식품 중금속 2항목, 먹는물 이온류 17항목, 수질 벤젠 등 유기물질 21항목, 토양 중금속 12항목 등 4개 분야에서 총 52개 항목에 참가해 전 항목에서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이만호 기자

## 잘못된 농사정보에 농식품부·농진청 대응은 '0'

### 민주 윤준병 의원 "농식품부·농진청, 미검증 농업정보 유튜브 점검 인력·예산 전무"

국민의 일상생활이자 습관이 된 유튜브 확산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은 콘텐츠들이 홍수처럼 업로드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들을 소개·홍보하는 콘텐츠들이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제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유튜버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반 농민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 또는 농작물 방제법 등을 소개하는 유튜버를 시청해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엉터리 유튜브를 점검·적발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도, 추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농리와 TV'는 구독자 24만 2천명으로, 2,700여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튜브를 통해 농식품 정보·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라'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여개의 콘텐츠

를 업로드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9,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민과 농촌을 대상으로 구제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유튜버에 업로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공식 유튜브가 아닌 일반 유튜버들이 검증되지 않은 농작물 방제법과 농사정보를 소개·홍보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대응을 위한 인력과 예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한 일반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락스와 소금을 사용해 고추 탄저병을 방제했다는 영상은 검색 한번으로 수많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농촌진흥청은 △병든 과실은 발견 즉시 제거 및 포장 정렬 유튜버를 통해 농식품 정보·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등을 소개·홍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3억 5,300만원을 투입했다.

농촌진흥청 역시 '농다라'이라는 이름의 유튜브를 개설해 현재 5만 8,900명이 구독하고 있고, 1,200여개의 콘텐츠

다수에게 소개되고 있음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대응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확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모두 미검증 농사정보를 포함한 유튜브 영상을 점검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은 전무했고, 미검증 유튜브 영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브 영상을 따라했다가 피해 발생했다는 댓글도 많은데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을 길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한 해 동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작물은 한시라도 잘못 관리하거나 관리에 소홀히 해도 쉽게 망칠 수 있는 만큼 검증된 농사정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유튜브는 검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막대한 농사정보들을 전파하면서 자칫 잘못된 영농법·방제법 등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엉터리 정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구제를 받을 길조차 없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관리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튜브에 만연해 있는 검증되지 않은 농사정보를 뿌리뽑아, 피해 농가의 하소연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11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2025년 급격히 감소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즉각 회복시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건의안'(최재현 의원)을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새로운 의회 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활발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송영자 의원이 중앙동 일대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점용과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정민 의원은 안전한 익산을 위한 전반적인 도로관리 및 개선을 촉구했으며, 조남석 의원은 상습침수 농경지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조규대 의원은 정부의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적극적인 도입·이입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2024 전북 인권관계자 워크숍'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 전북특별자치도 인권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북특별자치도 인권위원회와 기관 단체 인권협의회 등 도내 인권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함께 하여 인권 정책을 공유하고, 전북 내 인

권 역사를 돌아보는 지리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인권 역사 탐방으로 '전북 민주화 운동길' 코스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전라감영 선화당, 옛 가톨릭센터, 전주신성고 등 전북 지역에서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며, 과거



의 아픔을 되새기고 인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호 기자

## "표류하는 잼버리 유산, 애물단지로 전락해선 안돼"

### 김슬지 도의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 나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표류하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기 도의원(부안군),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이지형 교육협력추진단장(이상 전북자치도), 한금수 정책국장, 채신영 정책기획과장(이상 전북도교육청) 등이 참석해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김슬지 의원은 "4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지난

6월 준공됐지만, 미흡한 활용 방안을 찾기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빠른 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전북자치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기 의원은 "잼버리의 유산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활용해 나가는데 전북자치도와 교육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가 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박현규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금수 정책국장은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가 도내 청소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지속 가능 농업 발전 방안 모색

### 도의회 농복환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와 간담회 농업인단체, 쌀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등 요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 정읍)는 지난 1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와 농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도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농복환위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농업인단체연합회 노창득 회장 외 14명의 농업인단체 회장, 전북자치도청 농생명축산산업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업인 단체들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으로 쌀 가격안정 지원 조례 제정,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쌀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비율 인상, RPC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등을 요청했다.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부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재난 대응 기금을 미리 확보하고, 친환경 저탄소 인증 면적 확대, 축산농가 폭염 대응 시설 등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농민 단위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여성농

업인의 영농 활동 편의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편의장비 지원 및 생생카드 지원 예산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노창득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농업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하다"며,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 현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 예산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북 농업 발전을 위해 오늘 건의된 농정 현안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승식 위원장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농가 고령화, 일손 부족, 농업생산비 부족 등 수많은 위협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해 농도 전북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